



홍콩

중국과 홍콩의 자유무역협정(CEPA) 체결 배경 및 영향

부동산 가격 폭락, GDP 감소, SARS 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홍콩은 최근 중국과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여 경제회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EPA는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나, 공식적으로 CEPA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이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홍콩과 중국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홍콩-마카오-대만을 모두 통합한 경제공동체 설립에 있어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홍콩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CEPA의 내용은 <표 1>에서와 같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관세 철폐와 서비스 시

장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 철폐는 홍콩이 원산지인 경우에 한하여 2004년 1월부터 시계, 의류, 보석류 등 273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2006년 1월부터 홍콩이 원산지인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 부문은 2004년 1월부터 컨설팅, 회계, 광고, 건축 및 부동산, 의료, 물류, 창고, 은행, 법률, 증권, 보험 등의 17개 분야에 대해 홍콩 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약속한 서비스 시장 개방 일정보다 최대 3년 정도 빠른 것으로, 홍콩 기업이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 지점과 법인 설립 시 필요로 하는 모(母)은행의 최소 자산규모를 2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크게 낮춤으로서 홍콩의 중소기업 은행들이 중국에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 1〉 CEPA의 주요 내용

구분	상품 교역 부문	서비스 부문	기타
시행 시기	2004. 1.	2004. 1.	-
해당 분야	· 홍콩이 원산지인 273개 품목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무관세 적용. · 홍콩이 원산지인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무관세	건설링, 컨벤션/전시, 광고, 회계, 건축 및 부동산, 의료, 소매, 물류, 창고, 운수, 법률, 은행, 증권, 보험, 관광 등의 17개 분야에 대해 홍콩 기업에 한해 중국 시장 개방	무역 및 투자 촉진, 통관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간 협력, 법률·법규의 투명성 제고, 중의학(中醫學) 부분의 협력, 검역 및 위생 강화 등 7개 부분
이슈	'홍콩 원산지' 개념에 대한 문제	'홍콩 기업' 정의에 관한 문제	-
WTO 협약상의 중국 시장 개방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0%로 인하	2006년까지 대부분의 서비스업 개방	-

자료: 필자 작성.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 협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EPA 협약은 장기적으로는 중화권 경제 공동체의 포석

중국과 홍콩이 CEPA를 체결한 배경은 단기적으로는 홍콩 경제를 살리겠다는 중국 저브이 이지 포며이라그 보스 이다. 홍콩 경제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디플레이션의 지속, 실업률 증가, GDP 감소 등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으며 2003년 사바기에는 SARS이 여하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SARS 이후 홍콩 경제의 재건을

의체 CEPA로 서두러 체결하 피오서이 노아졌다.

또한, CEPA의 체결은 장기적으로는 중화권 경제공동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 등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경우,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홍콩은 중국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홍콩 제품이 3%선에 불과하지만 홍콩을 경유한 수입을 포함할 경우 중국 전체 수입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2002년까지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4,480.2억 달러 가운데 홍콩으로부터 유입된 금액이 995.0억 달러로 전체의

〈표 2〉 홍콩의 최근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f
G D P	160,584	165,384	163,973	162,959	161,100
경제성장률	3.4	10.2	0.5	2.3	0.9
재정수지/GDP	0.8	-0.6	-0.5	-4.9	-6.9
물가상승률	-4.0	-3.8	-1.6	-3.0	-3.5
실업률	6.3	5.1	4.9	7.2	8.3

자료: IFS, EIU.

〈표 3〉 중국과 홍콩의 교역관계

단위: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중국의 수출 총액	180,516	195,177	249,240	266,661	325,642
對홍콩 수출	37,129	36,917	44,530	46,503	58,483
홍콩 비중	20.6	18.9	17.9	17.4	18.0
중국의 수입 총액	140,385	165,779	225,095	243,567	295,303
對홍콩 수입(①)	6,667	6,893	9,431	9,424	10,788
홍콩 비중(직접수입)	4.7	4.2	4.2	3.9	3.7
홍콩 경유 수입(②)	52,230	51,180	62,670	63,660	73,317
① + ②	58,897	58,073	72,101	73,084	84,105
홍콩 비중(총 수입)	42.0	35.0	32.0	30.0	28.5

자료: 무역협회(www.kotis.net), 홍콩통계국(www.info.gov.cn.hk), 中國統計年監(2002) 자료 참조하여 자체 작성.

45.9%를 차지하여, 홍콩은 중국 제1의 직접투자 지역이다.¹⁾

그러나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의 독립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 경제 체제는 각 권역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도 불구하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화권 경제공동체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홍콩과의 CEPA를 체결하였으며, 마카오와도 이와 비슷한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중이다. 또한, 2010년까지 체결키로 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역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CEPA가 홍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CEPA의 효과에 대해 홍콩 정부는 홍콩

기업들이 연 9,6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홍콩 기업들이 WTO 개방 시점에 앞서 진출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세계 금융 및 무역 중심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중국시장 개척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부각시켜 홍콩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²⁾

그러나 CEPA의 홍콩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역 부문에서 '무관세'는 원산지가 홍콩인 제품에 한정되는데, 현재 홍콩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며³⁾, 2006년 이전까지는 제조업 품목 중에서도 홍콩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시계, 보석, 필름 등의 품목만이 제한적으로 무관세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향후 5년 내에 중국의 서비

1) 홍콩은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두 지역의 관계는 '앞에는 상점, 뒤에는 공장'(前店后廠)이라고 표현되어 광둥성은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홍콩은 이 상품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Deutsche Bank는 홍콩의 GDP가 0.4% 증가하고, 취업인구가 5,000~10,000명 증가하여 취업률이 0.2~0.3% 상승하며, 교역액이 1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3) 홍콩의 경제구조는 서비스업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은 1984년의 23.4%를 정점으로 하여 현재는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며, 향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스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어서, 서비스 분야에서의 효과 역시 단기간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홍콩이 중국에의 예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협약'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 체결되는 데 비해, CEPA의 경우 홍콩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제공,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중국이 일방적으로 홍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언론은 이번 CEPA를 중국이 홍콩에게 준 '큰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홍콩의 중국 예측화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상품 및 홍콩 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란 예상

한편, 이번 협약에서 '홍콩 상품' 및 '홍콩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홍콩 상품의 경우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산지는 상품 가치의 25% 이상이 생산된 국가라고 정의된다.⁴⁾ 따라서 외국기업이 25%의 부가가치를 홍콩에서 생산할 경우 對중국 수출에서 자동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홍콩 기업'에 대한 정의는 CEPA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홍콩의 기업법 및 유관 법률에 의해 세워진 기업이어야 한다. ② 홍콩 내에서 실제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i) 호쿠에서 영위하려는 사업과 중국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이 같은 성격이어야 하고, (ii)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iii) 해당 기업은 홍콩에서 설립·등록되고 실질 경영기간이 3년 이상(건축·은행·보험 등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하고, (iv) 홍콩에 사업장이 있고 회사의 규모 및 업종과 부합하는 크기에 있어야 하며, (v) 근로자의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일견 홍콩에 설립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홍콩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지분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홍콩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외국계 은행들이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중국 정부가 홍콩 기업의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등을 제한할 경우 CEP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홍콩 기업의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세 근】

4) www.drcnet.com.cn, CEPA opens the gate for more support for Beijing(Morgan stanley, 2003. 6. 23).